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o.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www.webkam.org/journal

한미목회연구소
다리놓는사람들
*Building bridges
in all communities*



**KOREAN
AMERICAN
MINISTRIES**

WWW.WebKAM.org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umber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Editor and Publisher

Paul Junggap Huh, Ph. D.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Editorial Associate

Daniel Adams
Decatur, Georgia

Advisory Board

Korean-American Professors in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

For any questions, subscription, and
articles please contact:

Tel. 404-687-4538

E-mail: huhp@ctsnet.edu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journal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Korean American Ministries
at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Korean American Ministries

701 S. Columbia Dr.

P.O. Box 520

Decatur, Georgia 30031

www.webkam.org

Stephen Hah 하스데반

Shin Yang

Abstract

Missionary Stephen Hah is the head leader of AMN (All Nations Worship & Praise Ministries) which is a praising institute. He is also the pioneer of C.C.M. and new style worship in Korea. Originally, Korean congregations' worship was very conservative and focused on adults. The original Korean worship style changed after Hah practiced AMN worship every Thursday starting from 1987. AMN members praised using guitars, drums, and keyboard in their worship services. AMN service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bringing young adults and children closer to church. Hah now educates worship leaders in various univers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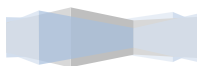
들어가는 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찬양은 대단히 지엽적이었고, 또한 예배에서 사용되는 찬송가에만 의지했었다. 하지만, 시대적 그리고 상황적 요구 속에서 젊은이들이 교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에 이와 발맞추어 교회에 찬양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하스데반 선교사가 이끄는 경배와 찬양팀(이후에는 올네이션스로 이름을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한국 내에 새로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하스데반 선교사와 그의 사역에 대해 알게되면, 한국내 찬양의 흐름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스데반 선교사에 대하여

올네이션스(ANM)가 대단히 유명한 것에 비해 하스데반 선교사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가 예장 통합측의 온누리 교회의 담임목사인 하용조 목사의 동생이라는 사실만 유명할 뿐 구체적으로 그가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등 그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이색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스데반 선교사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영국 성공회에서 안수를 받았다.¹

¹ <http://k.daum.net/gna/view.html?qid=2k2Kl>



그리고 Univ. of Bristol(1995) 에서 신학 학사를 그리고 Univ. of Aberdeen(2000) 신학 석사를 받았다.²

1987 년에 목요모임으로 경배와 찬양의 사역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주대학교(경배와 찬양학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경배와찬양 과정), 명지대학교(학점은행제, 경배와 찬양 예배예술 전문심화과정),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국제문화과)에서 찬양사역자를 키우는 일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³

올네이션스(ANM, 이전 경배와 찬양) 대하여

하스데반 선교사와 올네이션스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 올네이션스는 1987 년 목요모임, 즉 경배와 찬양의 사역으로 시작했다. 그들은 시편 146 편, 시편 67 편, 그리고 이사야 61 장의 말씀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심의 사역을 통해 13 억 중국과 10 억의 모슬렘을 위한 선교사역을 꿈꾸고 있다. 또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고 있다.

사역의 방향은 크게 네가지다. 예배의 회복, 영적인 자유와 치유, 전도와 세계선교, 그리고 구제와 공흥사역이다. 특히 올네이션스는 경배와 찬양학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찬양리더와 예배인도자를 키우는 일을 지속해 오므로써, 한국교회의 찬양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⁴

찬양

한국교회는 1960 년대 이후로 급진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성도들의 수적증가와는 달리 교회내의 예배와 문화는 그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찬양의 분야였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었는데, 다음의 두가지 이유였다.

첫째, 대다수의 교회들이 오르간, 4 중창 성가대, 그리고 피아노에만 의존하는 음악과 찬양만을 추구해 왔다. 이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교인들과 대단히 동떨어졌으며, 시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⁵

² <http://www.jj.ac.kr>

³ <http://www.anm21.org>

⁴ , ‘ (, 2003), p.16~18

⁵ Tom Kraeuter, [회중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 김동규 옮김(서울: 예수전도단, 2006), p.133.

둘째, 한국사회는 80년대 후반에 이데올로기와의 투쟁에 지쳐 있었고, 점점 교회로 다가오는 세속화의 물결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고, 이때에 교회에서 찬양은 단지 예배를 위한 장식에 불과했다.⁶

이때에 하스데반 선교사의 경배와 찬양은 많은 교회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경배와 찬양은 교회내의 다음세대(청소년과 젊은이)를 위한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졌다. 그러면서 경배와 찬양 모임에 많은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면서 큰 반응을 일으켰으며, 동시에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경배와 찬양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1980년 후반에는 지금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악기(일렉기타, 신디사이저, 드럼, 베이스등)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다. 이때에 일어난 하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경배와 찬양운동은 변화하기 힘든 교회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⁷

영향 - 경배와 찬양과 함께 한국교회에는 현대의 기독교 음악이라고 불리는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장르가 예배 안에 생겨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⁸

예 배

개념설명 - 하스데반 선교사는 찬양과 예배에 대한 큰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그것은 경배와 찬양의 집회를 참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집회에서 찬양시간이 말씀시간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찬양인도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배 사역자 또는 예배 인도자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동시에 예배인도자는 목회자에 준하는 영적인 역량과 음악적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⁹

영향 - 경배와 찬양은 혼탁한 사회와 영적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는 새로운 시도를 가져왔다. 특히 전통적인 예배의 틀과, 장년층만을 위한 예배, 그리고 전통적인 교리중심적 예배로 인해 예배에 대한 매력을 잃어가던 젊은이들을 자유로운 형식이면서도, 인격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경배와 찬양예배로 인도하면서 예배의 본

⁶ 하스데반, “유럽에서의 경배와 찬양” (빛과 소금, 1988년 9월호), p.83

⁷ 최중은, 경배와 찬양에서의 예배인도자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p. 53

⁸ 김치범, “한국교회의 경배와 찬양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46.

⁹ 하스데반, “예배 사역자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교회성장, 2004년 10월호), p.119

목적에 접근하도록 인도하였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 교회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했다.¹⁰

정의 - 하스데반 선교사는 경배와 찬양을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을 요구한다. 특히 그는 예배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경배와 찬양은 예배와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은 문화를 보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적운동이며, 참된 예배자를 세우고자 한다. 특히 그는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만남으로 정의하면서, 예배에는 두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 첫째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다. 즉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에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예배가 불가능하다. 두번째로 인간의 반응이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거나, 예배자가 하나님께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¹¹

강조 - 하스데반 선교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은 ‘예배는 삶이다’라는 것이다. 그는 영국의 청교도와 독일의 경건주의,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운동, 즉 회개를 중심으로 한 영적운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거룩한 삶, 엄격한 도덕, 근본주의적 신앙노선을 따라가는 영성이 기반이 되어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예배자가 나와야 된다고 강조한다.¹²

결론

1980년대 후반이후로, 지금까지 하스데반의 경배와 찬양은 한국교회와 예배, 그리고 찬양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영향이 한국기독교 문화와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올네이션스는 현재 자신만의 장르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특히 찬양인도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것이다.

Resources:

- 최종은, [경배와 찬양에서의 예배인도자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하스데반, [아이 엠 에프], (서울: 두란노, ANM), 1998
 최승용, ‘찬양사역연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Tom Krauter, [회중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 김동규 옮김(서울: 예수전도단, 2006)
 김치범, “한국교회의 경배와 찬양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¹⁰ , “ ” (, 2001),

p. 29~30

¹¹ , ‘ ’ (, 1993 2), p.88~92.

¹² , [], (: , ANM), 1998. p.139.

박용선, “한국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간행물

하스데반, “유럽에서의 경배와 찬양” (빛과 소금, 1988년 9월호)

하스데반, “예배 사역자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교회성장, 2004년 10월호)

하스데반, ‘경배와 찬양의 예배적 의미’ (목회와 신학, 1993년 2월호)

저서

하스데반, Life Giver - 마가에 의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ANM

하스데반,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 ANM

하스데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 빌립보서

하스데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 요한계시록

하스데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 베드로후서

하스데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 베드로전서

하스데반, 아이엠에프, (서울: ANM) 1998

하스데반, 내 백성이여, (서울: 두란노), 1998

전주대학교 <http://www.jj.ac.kr>

경배와 찬양 <http://www.anm21.org>

